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Effect on parenting stress of the
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신 숙 희

교수 전 귀 연*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Shin, Sook-Hee

Professor Jeon, Gwee-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much children variables, parents variables, contextual variables had an effect on parenting stress of the employed mot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employed mothers 203 who had 0-36 month children and were using daycare facilities in Daegu.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employed mothers' 'typical stress due to parenting' was higher than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Second, in children's variables, children's disobedient behaviors affected 'typical stress due to parenting' of employed mothers. Children's disobedient behaviors, controllability, accessibility, children's birth order, and children's sex affected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of employed mothers. Children's escaping behaviors affected 'guilty to the parenting

* 교신저자 : 전귀연(E-mail: gyjeon@knu.ac.kr)

by others' of employed mothers.

Third, in parent's variables, parental efficacy affected 'typical stress due to parenting' of employed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 age affected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of employed mothers. Parental efficacy affected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of employed mothers.

Fourth, in contextual variables, satisfaction about support of spouse, satisfaction about the child care, and satisfaction of income affected 'typical stress due to parenting' of employed mothers. Satisfaction about support of spouse, flexibility of work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about support of grandparents affected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of employed mothers. Satisfaction about the child care, children's adaptation in child care, and satisfaction of income affected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of employed mothers.

주요어(Key Words) :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취업모(employed mothers), 영아기(infants)

I. 서 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부부는 자녀의 출산을 통해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로 인해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경험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탄생은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변화들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많은 어머니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도 때로는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McCubbin & Patterson, 1983). 스트레스가 많은 어머니의 양육 경험 정도는 아동 복지에 가장 중요한 환경적 기여요인 중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체계의 분열에 중요한 요인이고 아동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Crnic & Acevedo, 1995)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의 주 책임은 어머니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김기현, 2000). 또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들로 인하여 가정과 일 영역에 있어서 노동의 분배가 붕괴되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을 하는 맞벌이 가족이 점점 일반화 되고 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다른 가사 과업과 함께 아동 보육은 외부자원(outsource)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Amy, 2004).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맞벌이 가족에서 취업모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등과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나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특성들에 따라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기는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을 준비하고(Piaget, 1974) 다른 시기보다 양질의 보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현은강, 태진, 2000). 따라서 영아기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은 양질의 영아기 자녀양육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동연, 윤현주, 2002; 김영미, 1990;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심자형, 이양희, 2005; 양경화, 2001;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이한우, 1999, 2002; 최지연, 2001; 하수민, 윤종희, 2002)과 유아기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강희경, 1998; 김기현, 2000; 김리진, 윤종희, 2000;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우영, 이숙, 1998;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이정순, 2003; 조용신, 정영숙, 2000)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희경, 조복희, 1999; 곽금주, 김수정, 2004; 김혜성, 2001; 백경임, 강희경, 1995; 안지영, 박성연, 2002; 전춘애, 박성연, 1998)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가 있다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체계, 탁아에 대한 죄책감, 부모역할만족도 등 특정한 일부 변인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경향이 있으므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특성 변인, 부모 특성 변인, 상황적 특성 변인을 총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취업모가 겪게 되는 실질적인 양육 상의 어려움과 양육 환경을 이해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정도는 어떠한가?
2. 영아기 자녀의 특성 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문제행동)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특성 변인(연령, 교육수준, 부모효능감)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4.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상황적 특성 변인(경제적 만족도, 직업만족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보육시설 만족도, 취업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정도)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기로의 전환기에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므로 다른 주요한 생활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스트레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춘애, 박성연, 1998).

한편 일상적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이는 성인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Crnic & Greenberg, 1990). 즉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념은 가족, 특히 부모역할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이 부모로 하여금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당황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일상생활 중에 초래하므로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Crnic & Booth, 1991).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취업모가 수행하는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양육 스트레스로 본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개념을 양육 스트레스로 보았다.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

를 타인양육 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2.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영유아기 또는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녀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문제행동과 같은 영아기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 변인을 자녀 관련 변인으로 보았다.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강희경(1998)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적 활동량이 많고 행동반경이 넓어서 여아를 둔 취업모보다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Mann과 Thornberg(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아들보다는 딸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연약하여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아를 둔 취업모가 남아를 둔 취업모보다 양육에 대한 죄책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rnic과 Booth(1991)의 연구에서 자율성이 증대되고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9~12개월일 때보다 30~36개월일 때 부모들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더 강하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 경험의 부족으로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이경혜(1982)의 연구와는 달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혜성(200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녀가 첫째보다 둘째 이하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의 증가로 인한 역할부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집중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영아기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수면 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겨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질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 스타일(Thomas & Chess, 1977)을 말하며, 유전에 그 토대(Plomin, 1983)를 두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Pedlow, Sanson, Prior, & Oberklaid,

1993)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생물학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질적 속성 및 그 발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어 간다(Kochanska, Murray, & Coy, 1997). 한편 Thomas, Chess 그리고 Birch(1968)는 뉴욕 종단 연구를 통해 기질을 9가지 범주(활동수준, 규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역, 반응의 강도, 기분상태, 주의 산만성, 집중력 및 지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기질차원을 까다로운 유아(difficult child), 더딘 유아(slow and warm up child), 순한 유아(easy child)로 분류하였다.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자녀일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김기현, 2000; 김혜성, 2001 등)가 있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경우 이 세 범주가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는 없으며, 특히 기질적 속성 및 그 발현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할 때 적절한 측정절차에 따라 재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김미숙,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미숙(2000)에 의해 개발된 척도에 따라 자녀의 기질적 특성(접근성, 정서성, 통제성)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접근성은 낯선 사람 및 대상에 대한 즉 새로운 사람,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접근행동이 나타나는 정도이며, 정서성은 특정 상황에서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정도이며, 통제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행동통제 즉 특정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이란 아동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치 못하고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서 다수인이 보여 주는 행동 경향과 다른 비정상적인 반응 형태를 보여 주는 성질 또는 행동(김윤숙, 1994)으로, 취업모에 의해 지각된 영아의 성질 또는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영아기 아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걷게 됨으로써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며,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능동적인 도전을 시작한다. 또한 운동기능의 발달 등 신체적 능력의 변화와 함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서 성취감도 맛보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격렬하게 표출하기도 한다(윤주화, 1998). 더욱이 직장생활과 보육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경우 이러한 아동의 행동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공격성, 심리적 불안, 미성숙, 반항 행동, 주의력 결핍, 회피 행동과 같은 6가지 항목을 자녀의 문제행동을 보았다.

2) 취업모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 취업모 관련 변인으로서는 취업모 자신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효능감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긴장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늘게 되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김경아, 1990; 남유리, 1989; 이광주, 1988)와 경험 부족에 따른 가정 운영의 미숙과 결혼 및 출산 등 환경의 전환이 이루어져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30대 주부보다 20대 주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이안나, 신효식, 1991)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양과 심리적 손상이 적으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른 부담을 덜 겪으며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남유리, 1989; 유희정, 1989)와 고학력의 취업모는 자녀양육보다는 자신의 일을 선택한 이기적인 어머니로 여기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취업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리진, 1999)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이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취업모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Johnston과 Mash(1989)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부모됨과 부모역할, 즉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기현(2000)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집단에서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부모효능감이 낮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효능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상황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특성(경제적 만족도), 지지 체계(배우자, 조부모 만족도), 직업 환경(직업만족도, 근무조건 융통성), 보육시설 환경(보육시설만족도,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과 같은 변인들을 상황적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적 만족도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취업모 자신이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소득이 높으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이 풍부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심리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권경희, 1985; 김미현, 류정숙, 신효식, 1993; 배종렬, 1985)와 월수입과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남유리, 1989)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만족도보다는 가계의 월수입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생활은 이웃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김년희, 안승철, 1998), 취업모에게 있어 실질적인 가계의 소득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직업만족도란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분만의 만족감과 구분되는 전체적인 직업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직업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에 만족할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구혜령, 1991; 임정빈, 정혜정, 1986; 최자령, 1991)가 있다. 그러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김리진(1999)의 연구에서는 직업 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근무조건의 융통성이란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보육시설 및 대리양육인의 일시적인 부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모가 직장에서 조퇴, 휴가, 근무시간의 변경 등으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근무환경에 대한 취업모의 주관적인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Galinsky(199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많을수록 자녀의 타아에 덜 어려움을 겪고, 직장-가족간 갈등을 적게 경험하며 부모역할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백경임과 강희경(1995)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타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취업모의 직업융통성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세 이하 전문·사무직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강희경(1998)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준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직업군에 따른 근무조건의 융통성을 살펴본 결과 전문직이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근무조건의 융통성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란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도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지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김리진, 1999; 박윤미, 2002; 오은경, 2002; Crinic, Greenberg, Rogazin, Robinson, & Basham, 1983)와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강희경, 1998)가 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사무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박윤미(2002)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고 아내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질수록, 남편으로부터의 직장일에 대한 격려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격려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긴장감이나 일-어머니 역할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긴장감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남편의 지지 점수가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이나 낮은 집단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nic 등(1983)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지지를 받은 어머니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특히 친지보다도 배우자와의 만족이 양육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강희경(1998)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어느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 참여가 목욕, 수유 등의 신체적인 일상적 양육활동 지지보다는 자녀의 습관지도 및 놀이활동과 같은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일상적 양육활동에 시달리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가 제공되더라도 배우자의 지지를 받은 상대 배우자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보다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란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조부모(친정 또는 시부모)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조부모의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맞벌이 가족의 경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크고 이에 따라 부부취업 가족의 생활실태와 양육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김기현, 2000;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있어 조부모(친정 또는 시부모)의 지지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모에게 제공된 조부모의 지지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며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은혜 등(1997)의 연구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택 식구의 혼계나 조언은 부모의 역할에 갈등을 증가시켜 자녀양육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취업모가 조부모의 지

지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며 이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의 보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보육시설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취업모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편적인 보육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실내외 설비, 교사의 질, 교육내용, 급식상태 등 전반적인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강희경, 1998; 김기현, 2000; 박윤미, 2002; 백경임, 강희경, 1995; Neal, Chapman, Ingersol-Dayton, & Emlen, 1993)와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리진, 1999)가 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모는 자녀가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는지 여부를 보육시설 종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해 듣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취업모가 지각한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정도란 자녀가 취업모와 함께 보육시설에 등원할 때와 등원 후 취업모와 작별을 할 때 보이는 반응에 대해 취업모가 직접 관찰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행동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종일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경숙(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2세보다는 3세가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보육시설을 다닌 아동이 1년 미만을 다닌 아동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종일제 보육시설에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아동을 평가할 때 반응 표현이 격렬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고 활동량이 많지 않다고 평가할수록, 아동이 보육시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할 경우 취업모에게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만 36개월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203명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9.8%, 여아가 50.2%였고,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7.3%, 둘째 이상이 52.7%였으며, 아동의 월령은 25~36개월이 69.9%, 13~24개월이 27.8%, 12개월 이하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은 31~35세 47.3%, 26~30세 40.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대졸이 5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졸이 29.1%를 차지하였다. 취업모의 직업은 사무직 39.3%, 판매직 23.4%, 전문직 11.4% 순이었다. 취업모의 가계 소득은 200~299만원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203)

변 인	구 분 N(%)	변 인	구 분 N(%)
아동의 성별	남 101 (49.8)	아동의 월령	12개월 이하 5 (2.5)
	여 102 (50.2)		13~24개월 56 (27.8)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96 (47.3)		25~36개월 142 (69.9)
	둘째 이상 107 (52.7)	취업모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59 (29.1)
취업모의 연령	20~25세 6 (3.3)		대학교 졸업 118 (58.1)
	26~30세 74 (40.2)		대학원 재학 6 (3.0)
	31~35세 87 (47.3)		대학원 졸업 15 (7.4)
	36~40세 15 (8.1)		기 타 5 (2.4)
	41~45세 2 (1.1)	취업모의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3 (1.5)
취업모의 직업	비숙련직 1 (0.5)		100~199만원 41 (20.5)
	숙련직 16 (8.0)		200~299만원 68 (34.0)
	판매직 47 (23.4)		300~399만원 47 (23.5)
	사무직 79 (39.3)		400만원 이상 41 (20.5)
	전문직 23 (11.4)		
	기 타 35 (17.4)		

2. 측정도구

1) 양육스트레스 척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된 김기현과 강희경(1998)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12문항),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하위 요인인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계수는 .90,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계수는 .87,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Cronbach's α 계수는 .81이다.

2) 기질 척도

영아의 기질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TTQ(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Fullard, McDevitt, & Carey, 1984) 한국어 번역본(최영희, 1990)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접근성(8문항), 정서성(6문항), 통제성(4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영아의 특성을 더 어려운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자녀기질 척도에 대한 하위 요인인 접근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84, 정서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80, 통제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50이다.

3) 자녀 문제행동 지각 척도

자녀 문제행동의 지각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Larzelere, Amberson 그리고 Martin 등(1989)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BC(The Toddler Behavior Checklist)를 윤정자(1998)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가 낮은 9문항을 제외한 공격성(6문항), 심리적 불안(12문항), 미성숙(7문항), 반항 행동(9문항), 주의력 결핍(10문항), 회피 행동(5문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자녀 문제행동 척도의 하위 요인인 공격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77, 심리적 불안의 Cronbach's α 계수는 .87, 미성숙의 Cronbach's α

계수는 .76, 반항 행동의 Cronbach's α 계수는 .82, 주의력 결핍의 Cronbach's α 계수는 .88, 회피 행동의 Cronbach's α 계수는 .74이다.

4) 부모효능감 척도

부모효능감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PSOC의 요인분석 결과 '부모효능감'이라고 명명된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부모효능감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4이다.

5) 경제적 만족도 척도

가정의 경제적 만족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1이다.

6) 직업만족도 척도

직업만족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기현(2000)이 사용한 직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7이다.

7) 근무조건의 융통성 척도

근무조건의 융통성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Glass와 Camarigg(1992)의 근무조건의 수월성, 융통성 및 지원(Easy of Work, Flexibility and Support)에서 근무조건의 융통성 요인을 강희경(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근무조건 융통성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7이다.

8)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

배우자의 지지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은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중에서 배우자의 자녀양육행동이나 지원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김기현(2000)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따른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다.

9) 조부모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

조부모의 지지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조부모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다.

10) 보육시설 만족도 척도

취업모가 지각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보육시설의 환경 측면(7문항), 경제 측면(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보육시설 만족도 척도에 대한 하위 요인인 환경 측면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79, 경제 측면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64이다.

11) 취업모가 지각한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척도

취업모가 지각한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정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민지(2000)가 개발한 '아동 행동관찰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의 부적응(11문항), 적응(6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가 지각한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척도에 대한 하위 요인인 부적응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2, 적응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5이다.

3. 자료 수집절차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보육시설 29곳을 이용하고 있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03년 8월 13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 총 4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52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만 36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질문지 49부를 제외한 203부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각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3)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4) 연구문제 2, 3,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녀관련 변인, 취업모관련 변인, 상황적 변인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후, 각 특성들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하위 변인인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전체 양육 스트레스는 2.96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역할에 걸쳐서 쌓이거나 역할의 질이 한쪽의 역할에서 빈약하게 되면 가족의 균형 행동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Crouter, Bumpus, Maguire, & McHale, 1999),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모두 해야 하는 취업모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이유는 자녀양육을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만족의 근원으로 인지하고 있거나, 현재의 보육 만족도와 자신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서 스트레스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으로 본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취업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과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생활조건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적 생활조건과 관련된 저소득 계층이 아닌 중산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장희경(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2>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N=203)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취업모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3.16(.74)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2.90(.70)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2.69(.77)
전체 양육 스트레스	2.96(.62)

양육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에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특성상 일상적인 돌봄 행동(목욕시키기, 수유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자녀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 문제행동과 같은 자녀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녀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R ² 증가	R ²	F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문제 행동	반항 행동	.43	.33***	.11	.11	20.79***
	문제 행동	반항 행동	.49	.39***	.16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기질	통제성	.33	.19**	.04	.27	11.85***
		접근성	.17	.19**	.02		
		출생순위	.22	.15*	.02		
	자녀 성별		.21	.15*	.02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문제 행동	회피 행동	.21	.17*	.03	.03	5.21*

*p<.05 **p<.01 ***p<.001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인은 문제행동 중 반항행동($\beta=.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항 행동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이거나, “싫어요”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Suarez와 Baker(1997)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이나 공격행동, 혹은 반항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비일관적인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 부모를 당황하게 하거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으며, 형제간의 갈등이 심해 아동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반항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취업모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 변인이 취업모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는 문제행동 중 반항행동($\beta=.39$), 기질 중 통제성($\beta=.19$)과 접근성($\beta=.19$), 자녀의 출생순위($\beta=.15$), 자녀 성별($\beta=.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아동은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신체적인 자율성을 획득하기 시작하고(Lieberman, 1995), 신체적인 자율성과 더불어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윤주화, 1998; Crnic & Booth, 1991) 아동이 이러한 행동적 특성을 많이 나타낸다고 지각할수록 취업모는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기질 중 통제성과 접근성이 취업모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제성 즉 아동이 행동의 조절을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접근성 즉 낯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접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통제성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이웃의 다른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행동, 발달 등에 대한 상담이나 의견 교환 활동을 통해 자녀와 또래집단의 아동을 가진 부모와 자신의 자녀 특성을 비교하여 보다 발달적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적 특성을 가진 자녀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게 되고, 그런 행동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취업모 자신이 부모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낯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자녀의 지나친 접근 행동은 취업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적절한 보호 및 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취업모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이 취업모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 때 취업모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자녀수에 따른 역할가중, 수면부족 현상이 모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준다고 한 양미선(2000)의 연구와 맥락이 같으며, 역시 자녀수의 증가로 인한 역할부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집중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영아기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수면 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안겨준다고 한 김혜성(2001)의 연구와도 맥락이 같다. 즉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원의 요구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취업모는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가 남아일 경우 취업모는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신체적 활동량이 많고 행동반경이 넓어서 어머니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아보다는 남아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강희경(199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남아의 행동적 특성이 취업모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자녀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중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녀의 문제행동 중 회피행동($\beta=.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행동 중 회피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취업모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자녀가 수줍어하여 소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위축된 행동

을 하는 등 회피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타인양육의 상황에 대해 자녀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지하여, 전업주부와는 달리 직장생활을 함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취업모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령, 교육수준, 부모효능감과 같은 취업모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취업모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R ² 증가	R ²	F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4.5	-.32***	.10	.10	19.79***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79	-.59***	.35	.37	51.76***
	부모 연령	-3.1E-02	-.13*	.01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부모효능감	-.33	-.22**	.05	.05	9.19**

*p<.05 **p<.01 ***p<.001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모 변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세 가지 하위 변인 모두에 부모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변인이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부모효능감($\beta =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은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취업모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모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데, 이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기현(2000)의 연구 중 취업모 집단에서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고 한 연구와 맥락이 같다. 따라서 부모효능감이 높은 취업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에 대처하게 되므로, 이것이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모 변인이 취업모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는 부모효능감($\beta = -.59$), 부모 연령($\beta =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취업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취업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모는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데, 이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여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취업모는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 부족에 따른 가정 운영의 미숙과 결혼 및 출산 등의 환경 전환이 이루어져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30대 주부보다 20대 주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 이안나와 신효식(1991)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따라서 연령이 적은 취업모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모 변인이 취업모의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효능감($\beta =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모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적게 경험하는데, 이는 자녀를 타인에게 양육시키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자원을 활용하여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상황적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만족도, 직업 만족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보육시설 만족도, 취업모가 지각한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정도와 같은 상황적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상황적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R ² 증가	R ²	F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만족도	-.19	-.25**	.08	.14	8.12***
	보육시설 만족도 경제 측면	-.20	-.16*	.03		
	경제적 만족도	-.14	-.15*	.02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만족도	-.24	-.33***	.16	.23	14.46***
	근무조건 융통성	-.13	-.17*	.04		
	조부모 지지 만족도	-.13	-.16*	.02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보육시설 만족도 환경 측면	-.40	-.26**	.10	.17	10.42***
	보육시설 적응여부 부적응	.22	.20**	.04		
	경제적 만족도	-.15	-.16*	.02		

*p<.05 **p<.01 ***p<.001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 = -.25$), 보육시설 만족도 중 경제 측면($\beta = -.16$), 경제적 만족도($\beta =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육시설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는데,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가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옷을 갈아 입히는 등의 실제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은 주로 놀이 활동에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므로(Darling-Fisher & Tiedje, 1990; Thomson & Walker, 1989) 취업모는 배우자의 자녀양육 참여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양육의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해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편의 가사 분담 및 취업주부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 관심 및 협조 등 지속적인 지원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김경신, 김오남, 1996) 이러한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시설 만족도 중 경제적 측면이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시설의 보육료, 보육시간,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 등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강희경(1998)의 연구에서 보육만족도가 낮고 보육비용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한 결과와 맥락

이 같다. 취업모가 보육시설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는 실제 보육료에 비해 보육시간이나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이 취업모가 주관적으로 바라는 수준과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만족도는 취업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소득이 높으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이 풍족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심리적인 여유를 주므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권경희, 1985; 김미현, 류정숙, 신효식, 1993; 배종렬, 1985)와 맥락이 같다.

상황적 변인이 취업모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 = -.33$), 근무조건의 융통성($\beta = -.17$),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 = -.16$)순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은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한 연구(김기현, 2000; 김리진, 1999; 박윤미, 2002; 유호용, 2001)와 맥락이 같다.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부부 가족의 증가 등은 자녀양육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주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하던 과거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남편의 지지를 받는 것은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취업모는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은 만 6세 이하 전문·사무직 및 생산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김리진(1999)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직장 근무조건이 융통적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이 같다. 직장생활을 하는 취업모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모두를 잘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며, 특히 자녀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대리보육자의 부재 시 조퇴나 휴가 등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적다고 지각하는 것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충고 및 일상적인 과업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 도구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조부

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그로 인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조부모가 지지를 제공해도 양육지원 방식이나 양육방식에 대한 충고 등과 같이 제공된 지지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취업모는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적 변인이 취업모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보육시설 만족도 중 환경 측면($\beta = -.26$), 자녀의 보육시설 부적응($\beta = .20$), 경제적 만족도($\beta =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시설의 환경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가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만족도 중 환경적 측면이 취업모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육시설 만족도 중 환경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백경임과 강희경(1995)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보육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육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이 같으며, 6세 이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기현(2000)의 연구에서도 보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이 같다.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과 주변환경, 물리적 거리, 보육계획, 자녀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 부모교육 등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환경은 가정대신 영아가 부모와 떨어져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외적인 환경이자 일상의 생활공간을 의미하므로, 취업모가 보육시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가 보육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취업모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보육시설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자신의 전(全) 발달을 구성(construct)해 나간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아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현은강, 태진, 2000). 자녀가 취업모와 보육시설에 등원할 때와 등원 후 취업부모와 작별인사를 할 때 보여 주는 반응은 취업모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자녀의 반응이므로, 이때 보여 주는 자녀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녀가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는 취업모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여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며,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일 경우 장시간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는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자신의 소득이 보다 나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질적인 소득과는 별개로 주변의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취업모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녀 특성 변인, 취업모 특성 변인, 상황적 특성 변인이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녀 특성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는 자녀의 문제행동 중 반항행동이 영향을 미쳤고,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는 자녀의 문제행동 중 반항행동, 자녀의 기질 중 통제성과 접근성,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의 성별이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는 자녀의 문제행동 중 회피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특성 변인들 중 기질과 문제행동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 부모와 새로 부모가 된 이들에게 영아의 기질에 대한 정보(Melvin, 1995; Rosen, Cameron, & Rice, 1996)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부모들은 기질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와 까다로운 영아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그런 정보가 부재할 경우 어머니는 아동이 환경 때문에 즉, 어머니로서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동이 더 까다롭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Janet, Nicole, Goldsmith, & Jeremy, 2004). 이런 사고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취업모의 직장생활 영역까지 부정적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취업모 특성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는 부모효능감이 영향을 미쳤고,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는 부모효능감, 부모의 연령이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는 부모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변인 중 부모효능감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취업모 자신과 관련된 요인이므로 자녀의 기질이나 직업 환경 및 보육시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접근의 용이함이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상황적 특성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보육시설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고,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는 보육시설 만족도, 자녀의 보육시설 적응 정도, 경제적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배우자 및 조부모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부취업 가족의 경우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경우 조부모의 지지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육시설 만족도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육시간, 보육료 및 시설 환경 등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기업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에서 제도적인 지원 즉,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 및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자녀보육에 대한 안정을 통하여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변인과 관련된 평가가 취업모 단독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변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교사, 취업부, 조부모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녀 변인 중 기질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기질 척도 중 일부 하위변인의 신뢰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접근성, 정서성, 통제성 세 개 하위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 = .84$,

.80, .50이었다. 접근성과 정서성에 비해 통제성의 신뢰도 계수가 .50으로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을 확신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부부취업 가족의 증가 현상으로 인해 영아기 자녀의 양육을 보육시설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보육시설 전반에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같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았으나 각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효능감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부모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기질이나 문제행동 등에 의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부취업 가족의 증가로 인해 취업모뿐만 아니라 취업부 역시 주요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유아학회지, 20(2), 41-55.
- 곽금주, 김수정(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8.
-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희(1985).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 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계 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년희, 안승철(1998). 1998년도 제51차 춘계학술대회(주제: 국가경제위기와 가정의 대처 전략) 분야별 발표논문 초록-가족, 아동, 소비자, 식생활: 도시가계의 주관적 경제 불안과 경제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4), 37-38.
- 김동연, 윤현주(2002). 팔라쥬 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9(1), 59-78.
- 김리진(1999).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미숙(2000). 1-3세 유아의 기질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미현, 류정숙, 신효식(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111-125.
- 김민지(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과 그들의 종일반 탁아기관에서의 적응.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윤숙(1994). 아동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 취업주부는 서울시 내 일부 여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미(2002).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1996). 영유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경임, 강희경(1995).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69-81.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자형, 이양희(2005). 전반적 발달장애(PDD)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8, 235-251.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경화(2001).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선(200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경(2002). 취업모의 양육태도, 배우자의 지지 및 직업 만족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이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양육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유호용(2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1989). 사무직 기혼여성 노동에 관한 연구 - 대기업 공채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3(2), 1-19.
-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77-89.
- 윤정자(1998).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 아동과 관련된 행동 및 가족환경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화(1998).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욕구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2(2), 67-79.
-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신효식(1991).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154.
-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 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2), 31-45.
- 이정순(2003).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83-199.
- 이한우(1999).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전춘애,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조용신, 정영숙(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자령(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연(200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수민, 윤종희(2002).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91-200.
- 현온강, 조복희(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현온강, 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 Amy, M. K.(2004). *Multiple role stress: A Precursor to coparenting behavior and toddlers' social competence in dual-earner familie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rnic, K., & Acevedo, M.(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pp.277-2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oga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router, A. C., Bumpus, M. F., Maguire, M. C., & McHale, S. M.(1999). Linking parents' work pressure and adolescents' well-being: Insights into dynamics in dual-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453-1461.
- Darling-Fisher, C. S., & Tiedje, L. B.(1990). The Impact of Maternal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9, 20-26.
- Fullard, W., McDevitt, S. C., & Carey, W. B.(1984). Assessing temperament in one to three years of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 205-217.
- Galinsky, E.(1992). The Impact of Child Care on Parents.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159-171.
- Giband-Wallston, J., & Wanderr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lass, J., & Camarigg, V.(1992). Gender, Parenthood, and Job-Family Compati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 131-151.
- Janet Shibley Hyde, Nicole M. Else-Quest, H. H. Goldsmith, & Jeremy C. Biesanz. (2004). Children's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predict their employed mothers' work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5(2), 580-594.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Kochanska, G., Murray, K., & Coy, K. C.(1997). Inhibitory control as a contributor to conscience in childhood: From toddler to early school age. *Child Development*, 68, 263-277.
- Larzelere, E. M., Amberson, A. J., & Martin, G. T.(1989). The Toddler Behavior Checklist: A Parent-Completed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38, 418-425.
- Lieberman, F. A.(1995). *The Emotional Life of the Toddler*. The Free Press.
- Mann, M. B., & Thornberg, K. 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pp. 7-37). New York: Haworth Press.
- Melvin, N.(1995). Children's temperament: Intervention for par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0*, 152-159.
- Neal, M. D., Chapman, N. J., Ingersol-Dayton, B., & Emlen, A. C.(1993). *Balancing Work and Caregiving for Children, Adults, and Elders*. Newbury Park : SAGE.
- Pedlow, R., Sanson, A. V., Prior, M., & Oberklaid, F.(1993). Stability of maternally reported temperament from infancy to 8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98-1007.
- Piaget, J.(1974). *Biology and knowledge: An essay on the relations between organic regulations and cognitive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lomin, R.(1983). Childhood temperament.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ve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6. pp.45-92). New York: Plenum.
- Rosen, D. L., Cameron, J., & Rice, D.(1996). The Temperament Program. *HMO Practice, 10*(3), 140-142.
- Suarez, L. M., & Baker, B. L.(1997).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and parents' str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47*, 373-381.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omson, L., & Walker, A. J.(1989).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